

# 온 사랑

한국틴스타 소식지 통권 59호



# Happy TeenSTAR

2023

12

\* 2023년 12월 틴스타 소식지는 올 한해 동안 있었던 워크숍 수료자와 현장 교사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서로 다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고유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의 틴스타 정신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모습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틴스타 가치를 살아가는 모든 선생님들이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 내가 나와 만나는 시간, 틴스타의 선물

김수정 예비

203차 교사양성워크숍 수료자

저는 워크숍 있기 3일 전, 틴스타 사무국에 다 른 불일로 전화 한 통 했다가 203차 기수 막차를 타고 참석하게 된 참가자입니다. 제 전화를 베로니카 선생님이 받으셨고, 문의 전화 한 통도 귀하게 응대해주시며 대화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교사양성 워크숍을 받을 수 있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땐 우연인 듯 보였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 경로를 통해 하느님께서 저에게 올여름 틴스타 교육을 꼭 듣게 해주신 선물, 필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딸을 가진  
엄마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딸을 가진 엄마입니다. 보통 여자아이들이 초등학교 3,4학년 정도부터 엄마들이 모이면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들 성교육을 슬슬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언제 시키면 좋을까, 4~5명 정도 한 팀을 짜주면 좋다더라, 유명 강사들은 바빠서 스케줄 잡기가 어려우니 미리 알아봐야 한다더라. 초등 고학년이 되면 한번 시켜보라며 마음 맞는 친구들과 리 한 팀을 짜주려는 노력들을 합니다. 저도 아이가 앞으로 자기 몸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성교육은 꼭 필요하고 가르쳐야 한다 생각하는 요즘 엄마입니다.

**저는 생명윤리학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에서 생명윤리학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올여름 이탈리아 로마로 생명 문화탐방을 다녀왔는데, 탐방 중 생명운동 본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낙태 직전의 태아들을 살리기 위한 그곳의 노력 덕분에 40년간 26만명의 아기들이 태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감명받아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애초에 낙태를 고민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더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내내 들었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성교육이 중요하겠구나 생각했고, 이런 접근으로 알게 된 것이 인격적인 성교육, 틴스타였습니다.

또한 로마에서 제 룸메이트 선생님에게 아이 성교육 프로그램을 하나 추천받았는데 그것도 바로 이 틴스타였다는 것이 기억났습니다. 이처럼 딸아이 성교육하기에 적절한 시기에 여러 경로를 통해 틴스타를 알게 되어 안심되고 기뻐했습니다.

**203차 교사양성워크숍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이니 아이들을 위한 틴스타 수업이 있겠다는 생각에 사무국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습니다. 현재 아이들 수업은 개설된 게 없고, 그대신 틴스타 교사양성 워크숍이 있는데 참가해 보면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원래는 일찌감치 마감됐었지만, 막판에 한두 분이 등록을 취소해서 마침 자리가 있다고. ‘한번 들어볼까?’ 하는 마음과 이미 준비된 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수업일텐데, ‘내가 어떻게?’ 이 두 마음이 갈등하고 있는데, 엄마가 배워 직접 가르치는게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성교육이 될 거라는 전화기 속 또랑또랑 확신에 찬 목소리, 믿음직한 설명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이렇게 저는 막차를 탄 참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5일간 너무나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하게도 5일간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교육을 받기 전에는 나이 오십 넘은 여자에게 성교육이 제 자신을 위한 것이 되리라는 것은 아예 머릿 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배워서 귀한 외동딸에게 알려 주고 싶었고, 학문적으로 좀 더 배워 다탈의 기로에 선 어느 산모나 태아에게 작게나마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인데, 틴스타 교육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저’였습니다!

제 안에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性)에 대한 저의 밀바탕 생각들이 인지되었고, 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니 관점이 변했습니다.

성교육은 남성으로부터 방어를 위한 것, 마치

호신술 쯤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남녀 사이에 원하지 않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성관계는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며 살았구나.

중년 여성의 여성성은 영화 속 파리지엔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정작 내가 느끼는 나의 여성성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구나. 무조건적인 보호가 먼저가 아니라, 자기 몸을 잘 알아야 자기 몸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한 다음에야 비로소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구나. ‘하지 말라’의 관점이 아닌 ‘해라’구나.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구나.

**틴스타를 알게 된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알게 된 이상 절대 예전처럼 살 수 없게 된다는 손호빈 신부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제 저는 제 몸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감히 엄두도 못 냈던 딸아이의 성교육에도 도전해 보고픈 마음이 듭니다. 하느님의 선물인 제가 하느님의 선물로 203차 동기들과 틴스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나의 8월이 참 의미있었고,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모든 순간이 감사로 바뀌는 틴스타 교육

진혜영 루시아  
(중국 광저우 한인공동체 주일학교 교사)  
203차 교사양성워크숍 수료자

3년 반 만의 한국행이었다. 긴 코로나로 오랫동안 고국 땅을 가다니 할 일이 수두룩했다. 한국행 버킷리스트 중에서 틴스타 성교육은 맨 아래쪽이었다. 여차하면 다음 기회를 노리자는 그런 일 중 하나였다.

내가 사는 곳은 광저우, 코로나로 철저하게 고립되었던 중국이다. 나는 이곳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다. 몇 해 전 틴스타 교육을 받은 선배 교사가 나에게 한국 갔을 때 틴스타 교육이 이뤄진다면 꼭 배우고 오라고 늘 이야기 했다. 틴스타 워크숍이 이번 여름에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당 신부님과 사목위원들이 교육을 듣고 오라고 허락해 주셨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광저우로 돌아올 날과 워크숍 날짜가 맞지 않았다. 그래서 과감하게 틴스타 교육을 할 일중에서 삭제하고, 한국에서의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데, 왜 자꾸 틴스타 교육이 눈앞에 아른거리는지, 난 결국 가족 여행 가는 차 안에서 비행기 표를 연기하고, 틴스타 사무국으로 전화를 걸었다. 친절함 안내와 내가 주

일학교 교사라고 하니 “선생님은 더더욱 필요하시겠어요.”라며 막차를 태워주셨다. 땀 흘리다 늦어 버린 선택에 죄송했는데 친절하고 안정감 있는 목소리에 “잘했어”라며 등을 토닥겨려주는 안도감이 들었다.

그때부터 기다림이었다. 타국 생활과 코로나로 대면 강의가 없던 나에게 설렘 그 자체였다. 가족들과 주변에서는 내가 성교육을 받고 돌아가기로 했더니, 더 배울게 있냐며 농담처럼 이야기를 던졌다. 나 역시 그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먼저 배운 선배 교사가 꼭 들어야 한다는 말에 교육이 너무 궁금해졌다. 생각해보니 그동안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아본 적은 없었다.

워크숍은 진행되는 내내 감동이었다. 양질의 강의 내용은 다 담아가고 싶은 욕심이 들었다. 어느 것 하나 허투로 준비되는 것이 없었다. 하물며 간식 하나도 얼마나 이 만남을 소중하게 준비했는지 느껴졌다. 선생님, 수녀님, 신부님들 모두 개성이 돋보이게 강의를 해주셔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열정이 떠올라 감사의 미소를 짓게 한다.

함께 강의를 듣던 소중한 인연은 광저우로 돌아온 지금도 연락을 하며, 서로를 응원해주고 있다. 책을 봐도 아직도 어렵다며, 당연한 거라고 계속 공부해보자며, 힘을 북돋아 주고 있다. 이 역시 감사한 인연이다.

틴스타 교육을 마친 지금의 나는 변화되었다. 나의 몸을 생각하면 기쁘다. 그렇다고 이전의 내 몸을 홀대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 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의 몸이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지 내 몸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짧은 시간 안에 틴스타 교육을 전부 흡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여전히 어렵다. 매일 점액 관찰 일지와 감정기록을 남긴다는 것 역시 어려운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끝나고 나의 미비한 변화들에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더 늦기 전에 꼭 틴스타 교육을 받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 확신을 내가 만나고 있는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해졌다. 아직 나는 수련이 필요하지만, 본당 신부님과 사목 위원들께 때를 써서라도 전문가를 모셔 학생들에게 하느님의 선물인 몸의 가치를 알게 해줘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하고 싶다. 성을 호기심, 쾌락, 혹은 수치감, 회피, 미디어로 배우는 많은 학생들이 좀 더 건강하고 밝게, 성숙한 방법으로 몸의 가치를 알아갈 방법이 가톨릭 성교육 틴스타라고 확신한다.

나에게 변화된 중요한 부분은 배우자이다. 남편의 몸에 관심을 가지며 서로의 몸이 다름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온전한 자기를 내어주는 귀한 시간을 정하게 되었다. 이 교육을 통해 내가 선택한 혼인 생활에 나는 책임감과 배려가 더 많아졌다. 부부 사랑의 고유한 특성인 오직 서로에게만 내어주는 배타성, 전적인 자기증여라는 강의가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알고 있던 사실인데 잊고 지내고 있었구나. 나는 온전히 남편을 받아들 준비가 되어있었나 생각하며, 요즘 매일 밤 함박

웃음을 지으며 나를 이야기하는 내 모습에 아직 남편은 몹시 당황스러워한다. 하지만 싫지 않은 표정이다. 나부터 실천하고 변해야한다는 생각에 지속적으로 자연스럽게 둘만의 방법으로 서로의 몸을 자각시키게 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 몇 년 동안 내 주변을 맴돌던 틴스타는 감사하게도 하느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려는 신호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장에서 학생들과 제대로 소통하라는 가르침을 주시려고, 부족한 나를 일정까지 바꿔가며 교육을 듣게 하신 것 아닌가 싶다. 긴 시간 나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먼 이곳에서도 제대로 공부하며, 가톨릭 성교육 틴스타가 잘 쓰이게 하고 싶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교육에 열정을 쏟아 준 김혜정 선생님, 강의 진행되는 내내 밸런스를 맞춰주시며 부드러운 설득력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내가 뭘 잘못하긴 했구나, 식별력을 상승시키는 줄지도 못할 따끔한 강의를 해주신 이윤이 수녀님. 아는 것을 왜 안다고 말을 못해! 확신이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줘라를 느끼게 해준 손호빈 신부님, 부드럽고 순수하고 자신을 온전히 다 보여주셔서 더 몰입한 강의, 꽃처럼 웃음짓게 하는 이창영 신부님. 모든 분들의 열정 강의, 지금도 그립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또 뵈 날을 기다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203차 서울틴스타 교사양성워크숍



비로운 ‘성(城)’의 문을 하나씩 열 듯 ‘성(性)’으로 안내했습니다.

# ‘성(性)’ 그 너머의 의미

오영래 세실리아 수녀  
(샬트르 성바로로 수녀회)

34차 교사양성워크숍 수료자  
203차 교사양성워크숍 재교육

## 진짜 ‘성(性)’을 만나다.

2011년 여름으로 기억됩니다. 당시 성소실 소임을 하던 저는 많은 젊은이들과 면담 및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性)’에 대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고에 물음표를 던지면서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의 한계에 부딪히는 답답함이 있었고, 때로는 경험하지 않아도 될 아픈 기억과 책임질 수 없는 결과에 따른 상처로 고통받는 젊은이들을 어떻게 동반해야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성(性)’에 대한 개념은 소위 ‘성관계’였습니다. 이때 선배 수녀님의 소개로 틴스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강의는 매 강의 때마다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도 성인인데, 언니, 오빠, 남동생까지 있는데 이렇게까지 몰랐다니! ‘성(性)’에 대해 무지했던 저 자신에 대해 놀랐고, ‘성(性)’을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지성적, 영성적으로 안내하는 틴스타 강의에 감탄했습니다! 틴스타 연수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친절하게 저를 신

진짜 만난 ‘성(性)’은 경이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과연, 하느님의 모상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 다시 만난 ‘성(性)’

2023년 늦은 봄, 젊은이 프로그램을 봉사하면서, 여전히 ‘성(性)’에 대해 좁고 왜곡된 사고를 가진 여러 젊은이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프로그램 진행 중에도 ‘성(性)’은 이슈화되었습니다. 프로그램후 함께 봉사했던 신부님, 팀원들과 ‘성(性)’에 대한 열띤 대화의 장이 열렸으나 대동소이한 경험치와 교리 지식만으로는 방향을 잡기 어려웠기에 저는 그 자리에서 ‘틴스타’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이 훌쩍 지났기에 전달 강의하기는 무리였지만 ‘성(性)’에 대한 교육은 틴스타가 최고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에 자신있게 추천했습니다. 다행히 모두들 틴스타에 관심을 가졌고, 여름이 되었을 때, 함께 봉사한 신부님께서도 공동체 수사님들과 틴스타 연수를 신청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저는 틴스타 교육의 필요성과 활성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당장은 소임상 어렵지만 기회가 되면 틴스타 교사로서의 활동이 가능한지 문의차 틴스타 사무실에 연락을 했고, 담당선생님은 제가 연수받은지 10년 이상이 지나서 내용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며 재교육을 권유하셨습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은 놀랍게도 제가 틴스타 연수에 참여케 했습니다.

담당 선생님 말씀대로 교육의 내용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더 다양해졌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성(性)’을 한 그루 나무로 보는 것이 아닌, 숲으로 바라보게끔 아낌없이 내어놓으시는 강사 선생님, 수녀님, 신부님들의 열강은 여전히 저를 요동치게 했고, 현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성(性)’에 대한 문제들과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교회의 사람으로서 제 시선을 더 확장케 했습니다.

성(性) 그 너머의 의미를 알게 해 준 틴스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틴스타는 ‘사랑’입니다

이효준 안토니오 신부  
(도미니코 수도회)

203차 교사양성워크숍 수료자

저는 지난 6월에 청년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봉사하게 되었고, 청년들과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스스로가 성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어려웠습니다. 교회 안에 성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틴스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어떤 수녀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교회는 시대에 뒤떨어졌는가?

2023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면 ‘섹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섹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스스로 선택하여 누군가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는지도 묻곤 합니다. 가톨릭교회는 혼전 성관계를 금하고 있고, 혼인 외의 성관계는 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에 대해서 ‘죄’라고 칭하면서 신자와 비신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은 가톨릭교회를 시대에 뒤떨어진, 성적 본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합니다.

저는 신학교 수업 때에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몸의 신학'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지만, 귀로만 듣고 배웠던 몸의 신학을 '틴스타' 프로그램 안에서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중에 몸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나의 신체는 성적인 욕구로 가득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런 성적인 욕구를 가진 육체가 때로는 싫다는 생각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틴스타 프로그램 안에서 바라보는 섹슈얼리티는 한 인간이 남자, 여자로서의 인격을 형성하는 본질입니다. 생물학적, 심리적, 영성적, 사회적, 문화적, 지성적 차원들을 나누지 않고 통합적인 시선으로 성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성은 단순한 욕망 덩어리가 아니며, 인간의 몸은 하느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장소입니다.

### 틴스타는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르칩니다

틴스타는 단순한 성교육이 아닙니다. 틴스타 교육은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르칩니다. 교육 중에 생식력 자각 훈련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생리주기가 그렇게 복잡하고 다양한지 몰랐습니다. 여성의 생리주기가 잘 이해되지 않는 저를 위해서 수녀님들이 쉬는 시간에 개인교습을 하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도 가톨릭 교회 안에서 여성 수도자가 사제에게 여성의 생리주기 및 배란기에 대해서 거리낌없이 이야기하고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은 틴스타 뿐일 것입니다. 저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호르몬 작용과 감정변화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지난 몇 일 동안의 나의 감정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틴스타 교육을 통해서 우리 몸에 집중하게 되었고, 몸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자신들의 인생을 자기 증여를 통하여 사랑하고, 사제와 수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자기 증여의 모범을 따라서 교회에 자기 증여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틴스타 교육은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하고 진정한 사랑을 지키고 진정한 사랑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틴스타는 '사랑'입니다.

## 건강한 성에 목마른 이들의 오아시스, 틴스타

김종용 프란치스코 신부  
(수원교구)

13차 교사양성워크숍 수료자  
203차 교사양성워크숍 재교육

### 20대 젊은 사제 틴스타를 만나다

2004년 20대 젊은 사제였던 나는 여느 누구처럼 건강했고 주체할 수 없는 성욕은 나를 구속 주회 수도원에서 열린 성직자 수도자를 위한 틴스타 워크숍으로 이끌었다. 내 자신을 위한 교육이었지만 명분은 당시 관할구역 내에서 남녀초등 학생 어린이 사이에 일어났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가톨릭 사목자로서의 적절한 예방과 대처 때문이었다.

대중매체를 통해 90년도 중반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성교육은 젊은이들에게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이라는 명목 하에 결국 피임과 자위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안심시켜 주었다. 많은 젊은이들은 그렇게 정화되지 않은 물에 겨우 목을 축이며 만족해하고 있었다.

지하철을 타고 한 시간 넘는 거리를 매일 오고 가면서 나는 틴스타 프로그램에서 황량하고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를 발견했다. 그리곤 누군가의 힘에 떠밀려 오아시스에 풍덩 빠져버리고 말았다. 당시 귀하디 귀했던 틴스타 워크숍 남성 파트를 담당하며 전국을 떠돌았다. 신부가 되어 그렇게 수없이 발기와 섹스를 외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그렇게 틴스타 교육을 통해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느님의 신비를 느끼고 전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틴스타는 여성의 생리주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교육이지만 오히려 지속적인 생식력을 가진 남자들에게 더욱 절실한 프로그램이었고 왜곡되고 오염된 기존의 성 관념을 정화하기엔 더 많은 남교사들이 필요했다. 남교사의 부족으로 남성들에게 더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나는 한국에서의 사제생활을 마무리하고 아프리카 잠비아로 선교를 떠났다.

**어린 부모가 학업을 중단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잠비아의 현실**

잠비아의 현실은 더욱 안타까웠다. 12,13살 여자어린이들이 임신과 출산, 양육으로 학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고, 대부분 학생이던 아이의 아버지도 돈을 벌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먼 고장으로 떠나는 일이 빈번했다. 그럼에도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다른 선입견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에 나는 감사했다. 선교지의 초대 신부님이 마련해 놓은 선교 본당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수많은 사건 사고들과 마주하다 보니 시간은 어느새 10년이 흘렀다. 틴스타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려 시도해 보았지만 남학생들의 경우 자위 행위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고 전기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TV가 거의 없어서 오염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인격과 책임이 따르는 개념교육에 만족했다. 여학생의 경우 여교사를 찾을 수가 없었다. 신부가 수녀님과 자매들에게 점액 관찰을 가르칠 수는 없는 일이었고 내 몸에서 점액관찰을 할 수 없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웠다.



**다시 한국, 19년 만에 워크숍에 참가**

결국 제대로 된 틴스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뒤로 하고 10년의 시간이 흘러 다시 한국으로 복귀했다. 그리고 지난 203차 워크숍에 초대받은 나는 더욱 심화된 교육내용과 세련된 교육방식 그리고 더욱 왕성한 생식력으로 무장된 교사들을 만날 수 있었다. 19년 전 나를 오아시스로 떠밀어주셨던 선생님은 여전히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지키고 관리하며 아름다운 꽃으로 자리잡고 계셨다.

점점 더 왜곡되고 오염되어가는 성에 사로잡혀 어둠 속을 방황하는 이들에게 틴스타는 꺼지지 않은 별빛으로, 건강한 성에 주리고 목마른 이들에게 마르지 않은 오아시스로 남을 것이다. 앞으로 틴스타가 지향하는 소중한 거룩한 성이 더욱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튼튼한 인프라가 갖춰질 수 있도록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2023  
전국교사모임 및 재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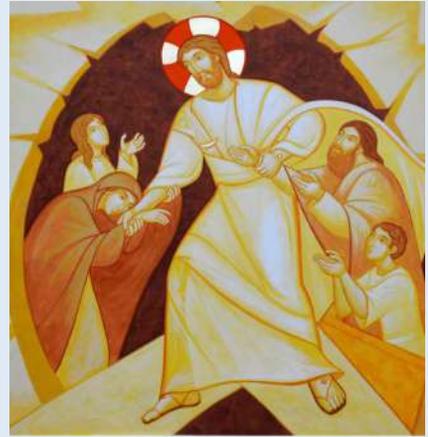
# 인간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 1차 지역별 모임

**믿음** 서울, 수원, 인천, 의정부  
9월 9-10일 예수마음배움터

**희망** 거제, 부산, 울산, 제주  
10월 8-9일 분도 명상의 집

**사랑** 경주, 구미, 김천, 대구, 포항  
10월 28-29일 한티 피정의 집



우리는 모두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1차 지역별 모임은 틴스타 교사들이 조용한 곳에 머물면서 예수님과 함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멈추어 숨을 쉬면서 자신을 되돌아 보고 신앙의 눈으로 그 의미를 해석해 보았고, 자신의 역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 2023 틴스타 전국교사모임 만족도

|                                      |       |
|--------------------------------------|-------|
| 전체 프로그램 만족도는?                        | 93.02 |
| 주제에 맞게 프로그램이 잘 구성이 되었나?              | 93.44 |
|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 볼 수 있었던 기회의 정도는? | 90.94 |
| 모임 장소 및 환경은 어떠한가요?                   | 91.33 |

참가자들은 성찰의 시간을 통해 자기를 잘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으며, 타인을 이해하고 함께 소통하는 능력을 키워 자발적인 주도성을 갖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고취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로그램을 함께 준비해주신 예수회의 전찬용 요한보스코 신부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 틴스타 소식

11회 국제 틴스타 모임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11월 9일~11일에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진 국제 틴스타는 13개국이 함께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김혜정 베로니카, 손호빈 신부, 이창영 신부가 참석했습니다.



모임은 틴스타 프로그램을 보완해줄 수 있는 강의들과 각 나라의 활동 공유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국제틴스타의 정관이 각 나라의 이사회 위원(Board Member)들의 의견을 모아 개정되었고 그 정관에 의해 5명의 IEC(International Executive Committee)가 선출되었습니다. 이제 IEC는 이사회 위원들의 의견을 논의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새로운 IEC 위원장은 프랑스의 룩(Luc Jeanneney)입니다.



국제틴스타에서 준비한 강의에서도 생식력 자각이 틴스타의 핵심이라는 것이 더욱 강조되었다. 트랜스젠더 이슈와 포르노그래피 등 성적인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틴스타가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한국틴스타는 한나수녀님을 위해 준비한 영적 선물도 잘 전달했습니다.



◀ 한나 수녀님께 드린 영적선물. 한국틴스타 전국의 교사들의 영적 선물을 모아서 직접 손으로 수를 놓아 깃발을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 한국틴스타의 활동을 발표하는 김혜정 베로니카(좌)와 파견미사에서 강론을 하고 있는 손호빈 신부(우)

## 지역 틴스타 소식

### 소개특강

- 7.16 신곡1동성당(청년,자모회)
- 8.24 수동성당(학부모회)
- 10.28 만수1동성당(복사단 자모회)
- 12.2 광주 성모해남유치원(학부모)

### 구미김천

- 매월 셋째주, 교사 월모임

### 대구

- 매월 셋째주 목요일 교사 월모임
- 10.29 대구틴스타 총회

### 부산

- 매월 마지막 토요일, 교사 월모임

### 울산

- 8.23-10.4 어린이를 위한 틴스타 교안 나눔



▲ 포항 오천중학교, 소년소녀를위한 틴스타

### 인천

- 7.1 제3회 인천 틴스타의 날
- 매월 둘째주 목요일 교사 월모임

### 포항경주

- 교사 월모임
- 11.18 포항경주 틴스타 총회



▲ 광주 성모해남유치원, 학부모 소개특강



▲ 의정부 신곡1동성당, 소년소녀를 위한 틴스타

## 2023 하반기 한국틴스타 수업현장

| 분류       | 지역  | 현장명            | 담당교사                       |
|----------|-----|----------------|----------------------------|
| 학교       | 서울  | 포이초등학교(어린이)    | 이주현 선생                     |
|          | 인천  | 소명여자중학교(소년소녀)  | 황윤정, 임송빈, 김지윤, 이병주 선생      |
|          | 포항  | 오천중학교(소년소녀)    | 고연미, 문태근, 정익주, 최성금, 신현옥 선생 |
| 종교<br>단체 | 울산  | 병영성당(어린이)      | 하영애, 한현수, 서혜린, 서명진, 김도희 선생 |
|          |     | 병영성당(성인)       | 하영애 선생                     |
|          | 의정부 | 수동 성당(어린이)     | 김동연 선생                     |
|          |     | 신곡 1동 성당(소년소녀) | 최선희, 김수진 선생                |
| 기관       | 의정부 | 꽃마리청소년회(소년소녀)  | 조정란 선생                     |

생명교육

- 7.1~2 청년생명피정 생명위원회와 공동 주관

부모 세미나

- 9차 부모세미나(12~13세)  
2023.07.10.~8.27 신정3동 부모모임
- 10차 부모세미나(9~11세)  
2023.09.05.~11.14 의정부 수동성당 부모모임

교사양성 워크숍

- 202차 서울 개포동성당 워크숍(8회)  
2023.6.18~8.6
  - 203차 서울틴스타 워크숍(5회)  
2023.7.31~8.4 명동, 영성센터
  - 204차 대전 노은동성당 워크숍(6회)  
2023.08.19~9.3
  - 205차 서울 가르멜 여자 수도원(5회)  
2023.8.21~25
  - 206차 수원교구 워크숍(4회)  
2023.8.26~9.23 (구)수원대리구청
  - 207차 서울 서대문성당 워크숍(8회)  
2023.8.20~10.29
  - 208차 인천 영종성당 워크숍(7회)  
2023.10.14~11.25
- 
- 209차 의정부 신곡1동성당 워크숍(5회)  
2024.1.6~20
  - 210차 울산 병영성당 워크숍(4회)  
2024.1.13~2.3
  - 211차 서울틴스타 워크숍(5회)  
2024.1.22~26 명동 영성센터
  - 212차 수원 가톨릭대학교(10회)  
2024.2.14~3.20
  - 213차 인천틴스타 워크숍(5회)  
2024.3.9~17
  - 214차 홍콩 정하상바로성당(4회)  
2024.4.16~19

전국교사모임

- 9월~10월 지역별 교사 피정
- 12.8 전국 활동 공유를 위한 2차 온라인 모임

발간

- 성체성사 - 성령의 마르지 않는 샘 : 호세 그라나도스 신부 저, 손호빈 신부 편역
- 가톨릭 성교육, 부모를 위한 길잡이 발간 : 손호빈 신부 저
- 교사양성워크숍 리플렛 제작



▲ 204차 대전 노은동성당 워크숍



▲ 206차 수원교구 워크숍



▲ 208차 인천 영종성당 워크숍

## [2023년 한국틴스타 후원자 명단]

강경희, 강정애, 고은형, 광현선, 권주연, 김기록, 김미하, 김선미, 김선화, 김수경, 김애경, 김영희, 김인순, 김정은, 김탄렬, 김현경, 김 훈, 남용귀, 마리아, 박미경, 박선은, 박은영, 박정숙, 박희중, 배안나, 백현주, 섭화현, 손상열, 송지연, 신은옥, 안수경, 연수자, 오연수, 유송자, 유형운, 윤오선, 이경원, 이명희, 이범희, 이상호, 이순례, 이유정, 이은영, 이정은, 이지영, 이호욱, 임수경, 장지숙, 정미영, 정해정, 조미희, 조용운, 조희수, 최병혜, 최준단

강명선, 강정혜, 고종은, 권희봉, 기현도, 김기용, 김민지, 김선영, 김성도, 김수연, 김애경, 김옥순, 김인영, 김정은, 김태수, 김현순, 김희욱, 남창림, 박미정, 박선희, 박은정, 박정아, 박희중, 배연희, 변미선, 성남숙, 손승현, 송채연, 심부덕, 안승관, 오경애, 오연수, 유송상, 윤경희, 윤옥순, 윤중섭, 윤지은, 이경자, 이경화, 이명희, 이범희, 이상호, 이순례, 이유정, 이은영, 이정은, 이지영, 이호욱, 임수경, 장지숙, 정미영, 정해정, 조미희, 조용운, 조희수, 최병혜, 최준단

강보심, 강진숙, 고행자, 구민숙, 권선주, 권소영, 김경희, 김관수, 김대성, 김삼례, 김선옥, 김선미, 김성도, 김수영, 김수영, 김수정, 김여옥, 김용성, 김원권, 김재관, 김재림, 김지선, 김태순, 김형일, 김희정, 남향오, 노정순, 민송희, 민혜원, 박민화, 박민계, 박영신, 박은희, 박정우, 박종민, 방미경, 방정희, 배은주, 배정은, 배현미, 서미영, 서영애, 서은지, 서춘애, 석현경, 성양경, 성진우, 손경숙, 송미숙, 송선경, 송은희, 심은미, 양기선, 양영희, 양주열, 엄세미, 안승관, 오경택, 오상희, 오세민, 오세욱, 오수동, 유연실, 유영규, 유영주, 유자경, 유재욱, 윤광순, 윤광희, 윤미향, 윤병준, 윤중섭, 윤지은, 은 주, 이경림, 이경숙, 이등준, 이금자, 이동준, 이만옥, 이상숙, 이상규, 이상미, 이상숙, 이상순, 이수경, 이수민, 이수진, 이수희, 이숙기, 이영숙, 이영애, 이영희, 이영희, 이우석, 이윤환, 이은경, 이은숙, 이은영, 이윤환, 이은경, 이은숙, 이은영, 이정은, 이정현, 이정화, 이정희, 이정희, 이주현, 이지향, 이진호, 이하나, 이현정, 이형운, 이희정, 임광희, 임수경, 임춘애, 임해원, 장성욱, 장순덕, 장영록, 장유리, 장희진, 전윤애, 전준금, 정광미, 정성희, 정양숙, 정재우, 정주연, 정해민, 정화주, 조미경, 조미선, 조미영, 정희중, 정희주, 조미경, 조미선, 조미영, 조병호, 조복희, 조성희, 조소형, 조영신, 조영중, 조원준, 조은아, 조정란, 조진화, 조현애, 조화수, 차상일, 차효숙, 채도근, 최도환, 최명숙, 최수녕, 최승화, 최연수, 최재분, 최재영, 최정혜, 최현수, 최 훈, 편성미, 하경옥, 하경희

하기태, 하여애, 한경숙, 한승덕, 한승희, 한승희, 한영수, 한희석, 허동 (주)메탈153, 허성학, 허세란, 허옥희, 허정호, 해원 트리네데, 홍경연, 홍미숙, 홍선자, 홍성지, 홍성희, 홍영숙, 홍은미, 홍종옥, 홍호선, 황금화, 황보운, 황유숙

### [한국틴스타를 위한 단체 후원]

대구틴스타, 대전 노은동 성당, 생명위원회, 서울 가르멜 수녀회, 서울틴스타, 수원틴스타, 올리베타노 베네딕토 수녀회, 의정부 신곡 1동 성당, 인천틴스타, 하비에르국제학교, 2023 전국교사모임 및 재교육

### [대구틴스타를 위한 단체 후원]

경주 근화여자중학교, 경주 성건성당, 포항 오천중학교, 포항 장량성당

### [서울틴스타를 위한 개인후원 및 단체 후원]

서울틴스타 후원금 계좌

우리은행 1005-602-944253 (재)천주교서울대교구

김영숙, 김혜정, 손호빈, 오영래, 정문호

### [인천틴스타를 위한 개인후원 및 단체 후원]

인천틴스타 후원금 계좌

신협 131-010-789841 인천교구 생명본부

강석형, 강은지, 김민정, 김진경, 박인서, 백윤옥, 변다영, 변정임, 서덕진, 소훈아, 안지혜, 양경원, 양승자, 오명자, 오미선, 오세원, 원지은, 윤재숙, 윤혜숙, 이병주, 이정림, 정현미, 최현인. 인천교구 가정사목부, 만수1동 성당, 서운동 성당, 태리 성당, 학익동 성당, 영종 성당, 박문유 지원,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인천가톨릭대학교 조형 미술대학, 소명여자중학교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은 매해 1월 가정으로 발송되며,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에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틴스타는 매월 후원자님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한국틴스타 후원 안내

한국틴스타와 함께해주세요.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의 CMS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우리은행 1005-804-490599

예금주: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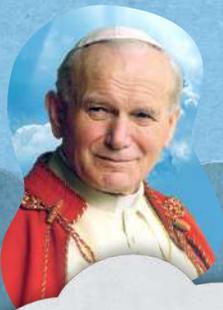


제로페이로 후원하기도 가능합니다.

제로페이 후원금은 직불카드를 포함하여 자동으로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으므로 별도의 후원금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 수험생을 위한 몸·사·이

몸이 말하는 사랑 이야기



사랑만큼  
배움이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 성 요한 바오로 2세

일 시 2024. 1.27(토)~29(월)  
장 소 명동 영성센터 게스트룸  
대 상 23년도 수능 수험생 (남학생)  
참가비 18만원  
문 의 홈페이지 문의게시판  
[teenstar.or.kr](http://teenstar.or.kr)  
한국틴스타 사무국  
02-727-2359



신청서  
QR코드

 Teen STAR

발행일 2023년 12월 (통권 59호)  
창간호 2004년 10월  
발행처 한국틴스타  
홈페이지 <https://teenstar.or.kr>  
주 소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영성센터 사무동 401호  
E-MAIL [kteenstar@hanmail.net](mailto:kteenstar@hanmail.net)  
전화 02)727-2357~9 / 02)755-2629  
팩 스 02)727-2243